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감정의 노예일 뿐, 소통으로 해결이 중요하다.

용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

가해자? 그저 불쌍한 존재일 뿐

만약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고통은 원하지 않으므로
세상에는 고통 받는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주의해서
가시 위에 앉다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배우자를 얻으려는 욕망이 너무 강하여
식사조차 하지 않기도 한다네.
또 어떤 이들은 목을 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독약을 마시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는 부덕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한다네. [6:34-6:36]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가해자는 분명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분노하지 않았더라도 방일, 탐욕, 들뜸 등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는 실수를 살펴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중생은 주의력이 부족하여 타인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지혜의 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가해자는 번뇌에 사로잡혀 나와 남을 실수로 해칠 가능성이 있는 불쌍한 중생일 뿐입니다. 우리 고통의 주적은 오직 분노 즉, 번뇌뿐입니다.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번뇌 때문에 이성을 잃어 자살까지 하는 사
람에 대해
자비심은 못 낼망정 화를 내서야 되겠는가.
[6:37-6:38]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망한 여러 원인을 보면 슬픈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더 두려워해야 할 만큼 자살의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강렬하게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분명 고통을 피하고 행복해지려는 이고득락의 욕구가 있습니다.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살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조차 뛰어넘을 만큼 번뇌에 강렬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들에게 우리는 자비심을 지녀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실질적인 통증과 피해를 나에게 준다면 정도에 따라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만약 그 흐름에 빠져 버리면 나와 그 불쌍한 가해자는 번뇌에 잡아먹혀 고통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번뇌에 저당 잡혀 평생 노예가 되거나 긴 윤회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가해자가 아주 작은 잘못만 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남은 감정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방향성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심으로 바꿔 그 앙금을 제거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발버둥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상식에서 우리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받았지만 사실 가해자도 번뇌에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다수는 우발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경우 범죄자는 평소 그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합니다. 마치 귀신에 씐 것처럼 사람이 변한다고 표현하는데, 분노라는 귀신은 이렇게 착한 사람도 순식간에 악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분노가 모든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평화롭고 착할지 모르지만,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떤 악한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인 그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까지도 망친 것입니다.

범죄자, 가해자에 대해 말하면 남의 얘기 같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 역시 일상을 살아가며 자잘한 반감과 짜증, 그리고 표출되지 않은 분노와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때마다 분노의 대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었던 우리 자신이 해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은 우리와 자주 만나는 친한 사람, 사랑하는 이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번뇌와 그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힘입니다.

분노의 이어달리기

> 원망의 대상은 분노 그자체
> 일어나는 감정이 사태 원인
> 대상자 용서가 해결 시발점

거나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범죄 행위와 구분되는 그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범부들의 본성
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화내는 것
과 같다네.
중생의 허물은 일시적인 잘못일 뿐이고
그들의 본성은 선량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하나니
구름이 끼었다고 하늘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다. [6:39-6:40]

모든 존재를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구름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수입니다. 범죄라는 구름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중생이라는 하늘을 동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불쌍한 중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요즘 교통사고 사건에 100% 과실 판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원리로 분노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가해자와의 과실 비율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해를 끼친 걸까요?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라 아무 이유도 없이 해를 끼쳤을까요? 평소엔 멀쩡하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원리를 적용해보면 분명 무엇인가가 거슬렸을 것이고, 그 무엇인가가 계속 긁어서 결국 뚜껑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또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기에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우리를 해치면
우리는 그것을 휘두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그도 분노에 휘둘린 사람이니
우리가 화내야 할 대상은 바로 분노라네.
내가 과거에 남들에게 해를 끼쳤으니
그들이 지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네. [6:41~6:42]

이 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물리 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번뇌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번뇌에 사로잡힌 과거의 내가 저지른 해악에 대한 반작용일 뿐입니다.

이러한 업보 사상을 대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저지른 악업에 대한 과보는 A에게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악업의 과보에 대한 진실은 A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누구로부터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태국에서 저지른 폭력의 실수가 한국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라는 피해자가 독립적이라고 여깁니다.

A는 모든 존재와 연결된 세상의 일부입니다. 시인들이 하나의 나뭇잎에서 바람과 햇빛 그리고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나뭇잎이 모든 존재와 연결된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A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관점은 그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과보는 세상 어디서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A가 나를 때린 이유는 과거의 내가 저지른 악업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누군가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과보를 그가 담당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악업에 의해 범죄에 유도된 것이니,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오히려 나입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